

재한유학생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

Information Behavior and Deficiency of International Student

황선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hwang.berry@gmail.com

황현석,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hyeons109@naver.com

Seon-young, Hwang,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Hyun-Suk, Hwang,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본 연구는 예비 연구(Pilot Test)로써, 엘프레드 채트먼(Elfred Chatman)으로 대표되는 정보 빈곤 이론을 바탕으로 재한유학생의 일반적인 정보 요구가 무엇이며 스스로를 정보 빈곤층으로 인식하는지, 어떠한 정보 빈곤 양상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앞서 현 시점에서 설정한 이론적 배경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한 중국인 유학생 J, K, Y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서론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대학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전체 대학생 중 재한유학생의 비율 및 전체 대학원생 중 재한유학생의 비율은 각각 약 1%, 8%로, 재한유학생 집단은 전체 집단에 비해 소수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가 정보 전달의 기본 매개라는 점과 낮은 환경에서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겪게 될 사회적 소외감을 고려할 때 이들이 크고 작은 정보 빈곤 양상에 시달릴 가능성을 낮추어 볼 수 없으며, 이는 재한유학생의 학업 이탈 및 국내 사회 적응 문제와 직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한유학생의 정보행태에서 정보 빈곤 양상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함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엘프레드 채트먼(Elfred Chatman)의 정보 빈곤

이론을 바탕으로 재한유학생의 일반적인 정보 요구가 무엇이며 스스로를 정보 빈곤층으로 인식하는지, 실제로 정보 빈곤 양상이 나타난다면 그 특징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함에 앞서, 현 시점에서 설정한 이론적 배경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특정하여 예비 연구(Pilot Test)를 시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정보 빈곤 이론

정보 빈곤 현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로서 1985년을 시작으로 고유의 정보 빈곤 이론을 정립해온 엘프레드 채트먼(Elfred Chatman)을 들 수 있다.

이제환(2005) 및 Karen E. Fisher, Sanda

Erdelez & Lynne Mckechnie(2009)을 참고하여 상기 이론의 골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채트먼은 인간을 인사이드(Insider, 스스로를 평범하게 여기는 사람)와 아웃사이드(Outsider, 스스로를 일반사람과 거리가 있거나,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람)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아웃사이드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자신들의 문제나 관심사로 인해 선별적인 정보 이용행태를 보인다. 셋째, 아웃사이드의 정보 빈곤은 자기 방어적 기제와 연관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나 도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정보 공유를 꺼린다. 또한 아웃사이드는 Secrecy(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는 등의 행위), Deception(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등의 행위) 등의 특징을 지닌다. 넷째, 아웃사이드는 정보를 수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및 상황을 정보 수용이나 문제 해결을 통해 자신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익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정보 수용 및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2.2 선행연구 분석

김귀성, 황지인(2009), 박경우, 여은호(2010), 이흥직(2012), 강만철, 장연(2015), 장정은, 구자경(2017) 등 재한유학생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중국인 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정보 빈곤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연구 대상은 크게 경제적 빈곤 계층과 소수(소외) 집단으로 구분되며, 대체로 채트먼이 제시하는

아웃사이드의 정보 양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장덕현(2006)의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이 TV 등의 매스 미디어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심층면담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정보 빈곤이 나타날 수 있는 계층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고, 특히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설문조사 등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정보 빈곤층이 스스로의 문제를 진솔하게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방법

본 예비연구의 목적은 재한유학생의 정보행태와 정보 빈곤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설정한 이론적 배경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추후 진행될 본 연구의 질을 상승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재한유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을 시행하여 이들이 질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정보행태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3.2 연구대상

선행연구 분석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재한유학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국인 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2017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통해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62%에 해당하는 군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예비연구에서는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제한 중국인 유학생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예비 연구 면담을 실시하였다.

4. 면담 결과 분석

본 예비 연구에서 면담을 실시한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원 및 대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J, K, Y 총 세 명이다.

J와 Y는 20대 중반의 대학원생, K는 20살의 대학생으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세 명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된 정보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Y는 학술 정보에 대한 요구, K와 J는 학업 및 교내 생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를 들었다.

이러한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정보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용상의 편의를 이유로 인터넷 검색 엔진의 활용 빈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그것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인지에 대해서는 세 명 모두 부정하였다.

Y의 경우 자신의 정보요구에 대해 특별히 신뢰하는 정보원은 없지만, 정보 진실 여부 파악이 중요할 때는 인터넷 정보원에서 획득한 정보를 한국인 학생을 포함한 주변인 및 신문, TV 방송 등의 정보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한다는 구체적인 대답을 들려주었다.

한편, K와 J는 자신들의 정보요구에 대해 가장 신뢰할만한 정보원으로 한국인 학생을 꼽았으나 실제 이러한 정보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늘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응답을 들려주었다. 예컨대 J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공지사항 등의 정보원에서는 학업 및 교내 생활에 대한 충분

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들은 주로 한국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과 교류할 기회가 드물 뿐더러 처음 보는 한국인 학생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어렵다. 결국 비교적 접근이 편한 중국인 학생들과 물어보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정보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각 면담 대상에게 채트먼의 인사이드·아웃사이드 개념을 설명한 뒤,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스스로를 일반적인 사람과 거리가 있거나 다르다고 인식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관해 Y가 들려준 응답은 다음과 같다.

“아니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 학생들과 조금 다른 점은 있겠지만, 이들과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아웃사이드라고 느낄 만큼의 차이를 느낀 적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재한유학생, 특히 유럽계 백인이나 흑인 학생들과 저 자신을 구별해서 인식할 때가 많아요. 사실 한국인에게겐 저도 똑같은 외국인 유학생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나 K와 J는 스스로를 아웃사이드로 여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K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려주었다.

“그런 것 같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친절한 편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에게서 자기 자신과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없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해도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다보니 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고,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일반적인 학생들과 구분지어 생각하게 된다.”

타인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여겨지거나 다른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나 도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관해서는 Y가 가장 정돈된 답변을 하였다.

“그런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한 적은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가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겠지만, 그건 자칫 모자란 한국어 능력 때문에 본래 의도가 다르게 전달될까봐 조심하는 것뿐이에요.”

K와 J는 위 질문을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사례와 함께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타인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경우 외면할 것이란 생각을 해 본적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심화를 걱정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왜곡했던 경험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유학생들을 특정하며 이해의 정도를 물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5. 결론

면담 결과, 재한 중국인 유학생 J, K는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형성과정 역시 자연스러웠다. 또한 자신들의 정보요구에 대해 가장 신뢰할만한 정보원으로 ‘한국인 학생’을 꼽았으나, 중국인에 대한 인식 악화 등이 우려되어 본인의 정보요

구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정보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다른 중국인 학생’들과 같은 특정 정보원에 정보를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 특정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경험이 많았다는 이야기 등을 고려할 때 아웃사이더의 주요 정보행위 특징인 선별적인 정보 이용 행태뿐만 아니라 Deception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J와 K는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여길 뿐 아니라 실제로 이에 대한 정보행위 특징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Y는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정보원의 선별적 이용행태 또한 나타나지 않았고, 추가적인 대화에서도 스스로를 타인과 유리화해서 인식할만한 배경이나 특정한 이유가 파악되지 않았다.

Secrecy와 Deception 관련 질의에 대한 Y의 응답 속에는 ‘자기 방어적 기제’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응답은 본래 가진 의도가 잘못 전달될까하는 염려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자신의 문제를 알리고 싶지 않아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Secrecy, Deception 등의 행동 원인이 되는 자기 방어적 기제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Y에게서는 K, J와 달리 아웃사이더의 특징으로 여길만한 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예비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중 과반수의 인원에게서 나타났던 정보행위 특징의 상당 부분이 채트면의 정보 빈곤 이론에 합치된다는 점을 볼 때, 이를 바탕으로 재한 유학생의 정보 빈곤 양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세 명의 유학생 모두 일반 재한유학생보다 우수한 한국어 능력(한국어능력시험 5급 취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질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

어 다소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점, 정보 빈곤 양상이 두드러졌던 J, K의 국내 체류 기간이 Y에 비해 짧은 편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진행할 연구에서는 관련 질의의 보완은 물론, 연구 대상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만철, 장연. 2015. 중국과 한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 비교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4(2), 1-18.
- [2] 고영만. 2005. 정보문해론. 한국도서관협회.
- [3] 교육부. 2015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 [4] 교육부. 201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 [5] 교육부. 2017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 [6] 김구. 2014. 한국에서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비교 분석.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7(2), 61-88.
- [7] 김귀성, 황지인. 2009.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연구. 學生生活研究, 29, 1-25.
- [8] 김현진, 김영주. 2015.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문화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어 사용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4), 201-225.
- [9] 문성호, 심병모. 2008. 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5(2), 45-61.
- [10] 박경우, 여은호. 2010.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소통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14, 64-94.
- [11] 박현미. 201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12] 서옥연. 2008. 발달장애아 가족의 정보 빈곤 양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13] 신선희, 유문무. 2014. 재한(在韓) 중국유학생의 대학생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18(2), 45-69.
- [14] 안미리. 2010. 이주민 여성의 정보소외. 학습과학연구, 4(2), 100-115.
- [15] 왕방, 이창식. 2013. 재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만족과 희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3), 397-405.
- [16] 유효령, 김보경. 2016.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자기노출,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4(3), 55-83.
- [17] 이정현. 2011.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7-39.
- [18] 이제환, 윤유라. 2005. 외국인 노동자 H의 삶과 정보빈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181-202.
- [19]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73-295.
- [20] 이향수, 이성훈, 최정아. 2016. 정보소외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 : 정보격차지수 조사대상자 재정의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6), 1-7.
- [21] 이홍직. 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어 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7(3), 129-143.
- [22] 장덕현. 2005.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빈곤 양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36(1), 219-236.
- [23] 장덕현. 2006. 일상을 통해 본 부산 지역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체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443-462.
- [24] 장정은, 구자경. 2017.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문화연구, 23(6), 691-714
- [25] 조용완.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 해소를 위한 서비스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325-356.
- [26] 한유경. 2009.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허형원, 손은령. 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진로교육학회, 24(1), 51-66
- [28] Karen E. Fisher, Sanda Erdelez & Lynne Mckechnie. 2009. Theory of Information Behavior. asis&t.
- [29] 교육부 홈페이지. [cited 2018. 04. 23]. <http://www.moe.go.kr/main.do?s=moe>
- [30] 토픽 홈페이지. [cited 2018. 06. 22]. <http://www.topik.go.kr/usr/cmm/index.do>
- [31] 교육통계서비스. [cited 2018. 08. 07]. <https://kess.kedi.re.kr/index>